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인도자	
신앙고백 Confession	다같이	
찬양과 경배 Worship	다같이	
기도 Prayer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말씀 Sermon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 요 4:5-15	곽형일 목사
결단의 시간 Dedication	다같이	
축복기도 Benediction	곽형일 목사	



3부: 오후 1:30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인도자
찬양과 경배 Worship	다같이
기도 Prayer	다같이
축복기도 Benediction	곽형일 목사

- 새예배당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0015 Main St. Fairfax, VA, 22031
1) 교회 퍼밋이 신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기적의 영광이 있기를 (예배당 구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일하심을 위해)
- 새예배당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1)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묵상하며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련회 - 8.30 저녁 8시 - 9.1.24, 오후 3시
2) 강사: 성명구/황은주 선교사
- 장로임직식을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장로임직식은 9.1.24 오후 5:30입니다.
2) 임직자: 박문기 안수 집사, 정차균 안수집사
- 헌금은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지난주 헌금 (Last Week's Offerings)

주정헌금	1191	건축헌금	3580
십일조	3136	멕시코바수론	3400
감사헌금	320	선교헌금	400
			총액
			12,027

1.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2. 죄인에게 할 말을 주시는 주님

3.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시는 주님

● 셀그룹 나눔 주제 Questions for Cell Group Sharing

1.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의 모습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2.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속 깊이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들어주는 이가 없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4.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가장 털어 놓고 싶은 마음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5.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샘 물을 소유했다는 느낌을 실감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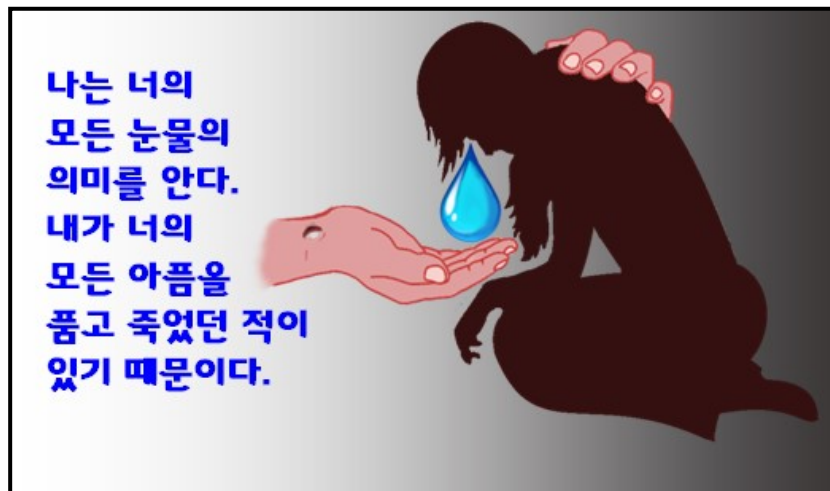
● 예배 및 모임 안내 (Services and Meetings)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화-금 새벽기도 (온라인)	오전 5: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토요새벽기도	오전 6: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YM, EM	오전 11: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토요 여성 성경공부	오전 9:00	새가족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00

● 후원선교사 (Supporting Missionaries)

Missionary	Country	Missionary	Country
고동훈/김홍희	Israel	김성화/진옥경	Dominica Republic
성명구/황은주	Mexico	장순희	Nepal
정은희	South Sudan	성화영	Sri Lanka
김광호	NK Church	강태호	Japan
나운주	Washington DC	이흥구	California

●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체휼하신 주님



●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체휼하신 주님

[마태복음 12: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사 42:3).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친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라도 같습니다. 갈대는 약한 것입니다. 인간은 몸도, 마음도, 도덕도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갈대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상해 있다가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온통 상처 투성이라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져 갑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하지 않은 사람이란 없습니다. 온갖 시련과 유혹 속에서 심령이 더럽힐 대로 더럽혀졌고, 꼬일대로 꼬여 있으며, 아플 대로 아파 왔습니다. 이 세상은 상한 갈대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저 값어치 없이 여기고 밟아 버리거나 아궁이에 던져버리면 그만입니다.

인생은 또한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에는 불꽃이 없습니다. 그저 불티만 남아서 끄으름만 날 뿐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그대로 두면 끄으름만 내다가 결국 꺼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 안에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더욱 아프게 하는 끄으름 쟁탈전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더 끄으름을 내기 전에 완전 소멸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서 온전한 갈대로 만드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불티를 새롭게 탈 불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상한 갈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스스로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의 끄으름을 안고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히 상하지 않을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영광의 불꽃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영원히 상하지도 꺼지지도 않을 존재로 새롭게 살아갈 가능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상한 갈대라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제안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마실지, 아니면 또 다른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일 뿐인 남자를 의존하여 목을 축이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하며 살아갈지. 다행히도 여인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샘 물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서는 상한 갈대라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인생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저 우연히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살릴 것을 작정하시고 필연적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겠느냐?" 그 물을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상하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껏 마셔왔던 죽음의 폐수를 마시겠습니까?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



생명샘교회
Living Spring Church



2024 표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now it shall spring forth
이사야 (Isaiah 43:19)

EM: Mark Lee 목사 / 장애우사역: 박경숙 전도사
Youth: Isaac & Martin Lin
제자훈련: 허용범 전도사 / 상담: 전에스티 전도사
아동부: 민경은 사모 / 유년부: 배민희 전도사
영아부: 배미자 권사 / 원로: 임종길 목사

담임: 곽형일 목사
7200 Ox Rd, Fairfax Station, VA 22039
T. 571.839.3058
LivingSpringVirginia@gmail.com
www.LivingSpring.net